

# “국민지원금 신속 지급 최선”

### 문 대통령, 수보회의 모두발언서… “취약계층, 자영업자에 도움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아울러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내 손안의 개인비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고 간편하게 신청해 지급받는 시스템을 갖겠다”면서 “정부는 국민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에 디지털 강국, 전자정부 선도국가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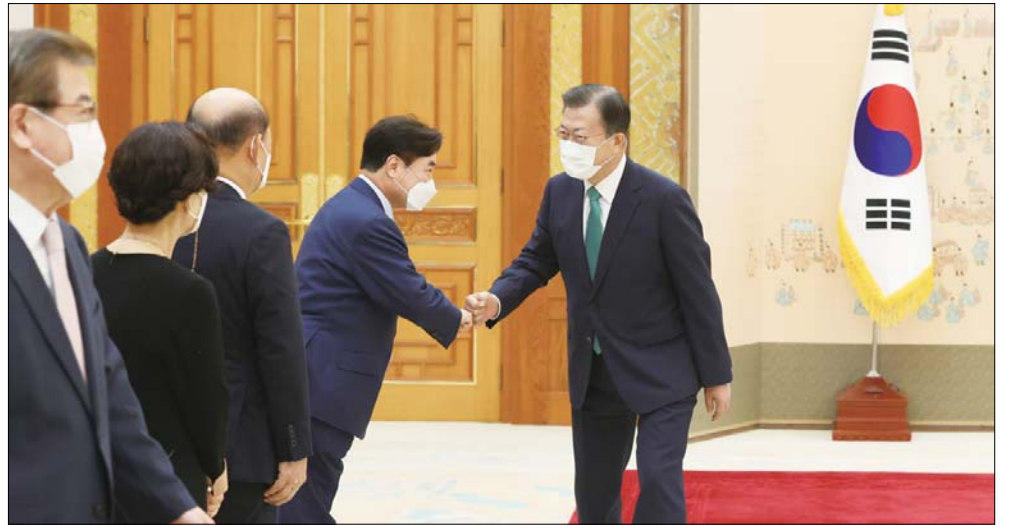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8월 수출도 34.9% 증가해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사상 최고 수출기록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목별 수출 성장세를 보면, 더욱 탄탄해진 우리 경제의 면모를 알 수 있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함께 신성장 유망산업이 모두 선전하며, 사상 최초로 1개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바이오헬스, 2차 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같은 수출 호조에 따라 상반기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주력 산업은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OLED, TV 등이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굳건한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시대적 대세인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속도를 높여나간다면 우리 수출 산업의 미래경쟁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임명장 수여식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면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역할 의문”

### 박용근 도의원 “도민 안전 위한 개혁의지 필요”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6일 2021년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 과정에서 “도민의 교통안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성과는 미미해 철저한 개혁의지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용근 의원은 “2020년 기준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을(사망자 수/교통사고 발생건수) 보면 전북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



박용근 의원은 “2020년 기준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을(사망자 수/교통사고 발생건수) 보면 전북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

균 1.7%보다 2배에 달하는 수치다.”며, “2019년 교통안전 지수의 경우에도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악순이 214위, 전주시 208위 등으로 나타나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는 매년 약 15억원의 도비가 보조되고,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약 1만여 대씩 증가하는 등 도내 교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만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역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용근 의원은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에게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점 과제가 돼야 한다.”고 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 도내 교수 1100인 모임 “정세균 전 총리 지지선언”

맞춤형 경제 대통령, 바른 대통령 찾기 전북지역 교수 1,100인 모임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맞춤형 경제 대통령, 바른 대통령 찾기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라고 밝혔다.

1,100명의 전북지역 교수모임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19 위기와 기후변화, 지역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청년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면한 국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경제 대통령, 바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한 분들 중에는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적이 없거나 과거 전과가 수차례 있거나 상용·막달 등 수신제가 못해 비판을 받고 있거나 독불장군 스타일이거나 정치경험이 전문한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맞춤형 경제 대통령, 바른 대통령의 기준을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맞춤형 경제 대통령, 바른 대통령의 기준으로는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국민이 잘 사는 일류 국가의 경제 대통령, 둘째,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대통령 셋째,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박한 대통령, 넷째, 품격 있는 세상을 만드는 품위 있는 대통령 다섯째,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소신 있는 대통령, 여섯째, 외교능력을 갖춘 역할 있는 외교 대통령 일곱째, 전북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것이다. /유호상 기자

# “더 속이고 겸손할 것”

### 민주 김윤덕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충청 경선 압승 관련

### “전북 관련 공약 초안 이번주 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김윤덕 의원이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이재명 후보의 순회 경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비해서라도 가능한 많은 지역 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지역 내 상황을 설명했다.

전북 관련 공약 발표와 관련 “이번주 내 전북 관련 공약 초안을 마무리해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간 전면적인 발표보다는 우선 핵심 공약 1, 2개를 통과해 먼저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투표가 본격화하는 만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전북에서의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충청지역 순회경선에서 50%를 넘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는 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더 겸손하겠다.”

충청권 순회 경선을 압도적 2연승으로 치러낸 이재명 캠프측이 기쁨과 함께 남은 일정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말과 휴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이뤘다. 민심이 (이재명에게) 오고 있다는 판단이다”며 고무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끝날때까지 끝내게 아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가올 1차 슈퍼위크와 전북 경선 등에 대한 대비태세를 전했다.

전북도내 캠프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역 시·도의원 등 정치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조만간 일부 시·도 의원이 참여하는 지지선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본성을

### 전주시의회 행정위

### 정원문화센터 조성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6일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 현장을 찾아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은영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과 각종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도시의 정원문화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미세먼지, 도시열섬 현상 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정원문화센터를 통해 도시의 정원문화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나온 당부사항을 조성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전주시의 정원문화 구원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정원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 백신 이상증상 환자 관리대책 마련을”

###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 전북도 의원이 6일 2021년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 과정에서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군산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등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도민들을 위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질병관리청 등의 보고에 따르면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드문 확률로 심근염과 심낭염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심뇌혈관계통의 이상 증세는 대부분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최근까지도 젊은 청년의 백신 접종 후 시일 내 심장마비 사건이 보고되는 등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유호상기자



이와 관련해 김기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장마비 등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며, “특히 이상 반응이 주로 16

세 이상의 청소년과 젊은 연령의 청년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청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기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도내의 이상 반응 발생 현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고, 도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유호상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www.culture-nightgunsan.kr  
GUNSAN CULTURE NIGHT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

# 문화재 夜行

## 군산 문화제

# 야행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야경 夜景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야로 夜路

밤에 걷는 거리

야사 夜史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화 夜畫

밤에 보는 그림

야숙 夜宿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야식 夜食

밤에 즐기는 음식

야설 夜說

밤에 감상하는 공연

야시 夜市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거리

오프라인 야행 2021. **9.9[목]** - **9.11[토]**  
18:00 - 22:00 | 군산 내항 및 원도심 일원

온라인 야행 2021. **9.9[목]** - **9.17[금]**

검색창에

주최 **군산시**

지원 문화재단

지원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예술과 063)454-3922